



강진 김영일



고흥 한운선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여수 김석철

보성군,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확대 시행 '큰 호응'

영농철 점심 마을 공동급식으로 해결



보성군은 지난해 73개 운영하던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올해 9개 마을을 추가하여 82개로 확대 시행하면서 농번기 농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마을 공동급식은 농번기 농민들의 가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작했으며, 연간 25일 범위에서 부식비와 인건비 등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마을공동급식 사업은 가사와 농사일을 도맡아하는 여성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여성친화적 정책으로, 홀로 농업에 종사하는 어르신들의 식사까지 챙길 수 있어 농업인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농번기 효자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5월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한 보성을 우선2 택촌마을 부녀회원들은 "서로 도와가며 점심식사를 준비하여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바쁜 농번기에 마을 주민들 간 화합의 장이 되었다."면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너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순천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안심 출산환경 조성

임산부와 영유아 위한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순천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출산관련 혜택을 지원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임신부·영유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난 3

월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임신부태교 교실, 출산준비교실, 임신부·영유아 그림책 읽어주기, 산후유가, 영유아 베이비 마사지, 영유아 요가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문화의 거리, 보건소에서 체험 중심의 산전 라미즈 요가, 태교음악회, 태명 문패 만들기, 다도체험, 그림책 읽어 주기 등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 참여한 예비 엄마들로부터 "평소 태교를 실천하기 어려웠는데, 엄마와 태아가 기분 좋게 감성을 교감 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6월부터는 도자기 공예, 그림책 읽어 주기,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법, 아기턱받이 만들기, 이유식 만들기, 신생아 감염 예방 및 청결관리, 모빌 만들기 등 태교 교실과 함께 다양한 임신부·영유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해 엄마와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순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시에서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자세한 임신부·영유아 맞춤형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출산장려팀(061-749-6916~8)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영광군, 전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공모사업 2개소 선정

영광군은 전남도에서 주관한 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및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공모에 2개소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런 공모사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전라남도가 주관한 사업으로 지난 3월 사업 신청하여 현지조사 및 도 육성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은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에는 영광군 특산물인 모시잇을 가공 판매하는 변영영농조합법인 선정되어 고용 창출과 함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오방어영농조합법인'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절임배추 가공사업과 농산물 공동생산·판매를 통해 주민소득 확대와 지역 일자

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특히 청년 마을기업으로 지역 내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관련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광양시 스마트도시 구축 위한 잔결음

광양시는 최근 '광양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함으로써 스마트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민간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란 빅데이터 솔루션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도시를 뜻한다.

시는 '광양시 스마트도시 계획'을 지난해에 수립하고 ▲4차산업 ▲환경 ▲에너지 ▲안전 ▲문화·관광 ▲교육 ▲보건·복지 등 11개 분야에 사물인터넷(IoT)과 모바일 등의 첨단 ICT 신기술을 적용한 60개 서비스를 도출해 교통, 재난, 에너지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며, 도시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그 결과 지난 5월에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공동주택 중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Smart@Home'이 선정됐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이 시행한 '사회혁신 해결 지능 정보화 공모사업'에 '차세대 자율 로봇'이 연이어 선정됨으로써 스마트 서비스 구축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광양시, 교통사고 위험지역 무인교통단속 장비 확대 설치

광양시는 지역내 교통사고위험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 8대를 사업비 3억5천만 원을 투입해 오는 6월 중 설치할 계획이다.

이런 사업은 정부 정책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의 일환으로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이나 과속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메리를 확보하게 된다. 신설되는 무인교통 단속 장비는 6월 중 설치완료 후 2개월 정도 단속 유예기간을 두며, 홍보 기간을 거쳐 정상 운영하도록 광양경찰서와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로 설치되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8개소는 포스코 기술연구소 삼거리, 진상농협 앞 도로, 세풍리 초남대교 부근, 도월리 무신마을 입구 사거리, 한려대 사거리, 마동2교차로 삼거리, 태인동 대우후관기공사사업부 앞 도이동 하포 교차로 사거리에 설치된다.

고흥군,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 사업 시행

고흥군은 청년의 참신하고 유망한 아이디어와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창업 기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 역량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결심함으로써 지역상권 활력 증진과 젊고 유능한 청년의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사업비는 7천만원으로 예비·초기창업자 청년 7팀(명)을 선정하여 1인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고흥군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팀) 또는 사업자등록 2년 미만 초기창업(팀)이며, 타 시·군 거주자도 신청일까지 고흥군으로 주소 이전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고흥=한운섭 기자

함평군, 소규모 집단급식소 특별위생교육



함평군은 지난달 31일 함평전지 종합복지관에서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집단급식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식중독 예방 특

별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중독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식품관련 위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날 전남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장 노희경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초청, 위생취약시설인 소규모 집단급식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예방법 ▲식품안전 취급요령 ▲개인 위생관리 요령 등을 실제

시례를 중심으로 전달했다. 또한 여름철 음식조리방법, 배급식 공간 청결관리법 등의 교육도 병행했으며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병원성대장균과 캄필로박터균을 알리는 물티슈, 위생마스크 등의 홍보물도 함께 배부했다.

군 관계자는 "식품위생관련 사항은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다양한 위생교육과 연중 지도점검으로 우리 지역에서 식품위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준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례기관 선정
 - 구체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징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